

‘옴천 농촌유학센터’ 국비확보 운영 탄력

〈강진군〉

농림부 공모 선정...폐교 위기서 도·농 교류 활성화 4천800만원 들여 교사 인건비 등...민·관 협력 성과

전국 최초 농촌유학모델 ‘옴천 농촌유학센터’가 국비 확보로 학교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옴넛골 농촌유학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돼 4천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촌유학센터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고 입시경쟁에 내몰린 도시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 제시 및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최초의 농촌유학 모델인 옴천면은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였다. 이에 옴천초등학교 교사 및 마을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농촌유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학생수가 48명으로 늘어나 지역 학교 및 농촌 활성화에 성공한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또 2016년 농촌유학센터 건립을 위해

강진군을 주제로 옴천초등학교, 전남도 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 군 주도로 유학센터를 완공하기도 했으며 강진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매월 25~35만원의 유학생 체류비도 지급받고 있다.
옴넛골 산촌유학센터는 올해 농촌유학 사업 국비 지원 유학센터로 선정돼 군비로 지원해왔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받는다. 지원 받는 프로그램은 컨설팅,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교사 인건비(지도, 생활 교사) 등을 국비로 지원받아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산촌유학 홍보, 집체된 산촌지

역 및 산촌학교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국비를 확보했다”며 “학교 폐쇄를 걱정했던 소규모 작은 학교가 인근지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전국 농촌유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군과 학교, 지역 사회의 협력의 힘이기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다”며 “지역 교육청 및 관계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정영특기자



경운대 비행교육원, 영암읍 남풍리에 개소

내년 학생·교관·정비사 등 150여명 입수

경운대학교 Flying Center(비행교육원)가 지난 28일 경운대학교 관계자, 영암군 공직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남풍리에 위치한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은 강의동, 기숙사 2개 동 3층으로 기숙사는 학생 및 교관 146명이 이용할 수 있는 2인용 73개실로 구성돼 있다.
영암군은 경운대학교와 2016년 3월 투자협약을 체결, 항공 산업의 투자여건을 제공하고 항공인력양성교육과 학술연구, 비행교육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영암군과 경운대학교는 투자실현을 위한 노력 끝에 비행 교육의 핵심시설인 800m 규모의 교육용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영암읍 송평리에 구축했고 실제 강의실과 기숙사 시설을 갖춘 비행교육원까지 개소함으로써 항공 산업 육성의 장기적 발전을 마련했다.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많은 성원과 노

력 끝에 마침내 개소한 경운대학교 Flying Center에 입주한 학생과 교관은 현재 40명이지만 내년부터 학생과 교관, 정비사 150여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영암읍 소재지 권은 이전보다 더욱 젊음과 활력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입으로 영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인 처방책으로 작용할 것이며 타 지자체의 인구 정책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 지역에 위치한 Flying Center는 영암군의 항공 산업 육성의 가장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의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약속할 매우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한 경운대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청년 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완도군, 내달 7일까지 접수

완도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완도군 거주자로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 경력자, 근로 소득 월 평균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인종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까지이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 가능하다. /완도=윤보현기자



무안군, 영농철 일손돕기 추진

무안군은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군 참여로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는 6월 21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앞선장구’ 운영을 통해 고령, 영세농, 부녀농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는 6월 5일부터 무안군청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담양 읍·면별로 양파 수확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전영태기자

나주시, 모기 천적 미꾸라지 방류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유전자수지, 대호수변공원 등 5곳에서 미꾸라지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사된 미꾸라지는 1년생 이하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1마리 당 하루에 말라리아 모기 매개인 중국열혈날개모기 유충을 600마리 이상, 일본뇌염 모기 유충을 1천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시제공

한빛원전·고창군, 농업용수 무상공급 업무협약

한빛원전·고창군, 농업용수 무상공급 업무협약
한빛원전·고창군은 지난 28일 고창군청에서 고창군과 한빛원전·고창군, 농업용수 무상공급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창군 지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해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고창군의 요청과 원자력본부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하천의 정화기능 유지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이바지하게 됐다.
계산저수지에서는 240만t의 수원을 확보하게 되며 주변 3개면 17개리 800ha의 논농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수는 5억3천만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기자

이한철 회장, 월포-송공 4차선 확장 건의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4일 천사대교 개통으로 외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천사대교 진입로인 국도 2호선(압해읍 월포리-송공리)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신안 천사대교를 찾는 외부 관광객이 1일 2만여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또 여객선 기항지가 압해 남강항과 안좌북호항으로 전전 배치됨에 따라 11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인 국도 2호선(월포-송공) 구간은 천사대교 개통 전 30분이던 소요시간이 개통 후 4시간으로 증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도로는 30년 전 농어촌도로로 시설 개량 없이 국도로 승격해 시설기준 미달로 통행 안전성 결여에 따른 교통수용능력이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현재 실시 설계중인 국도 2호선 5.41km(압해 월포-송공)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 외부 관광객 이용 편의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